

## 조선후기 시기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

박상영\*

<차 례>

1. 들머리
2. 이해의 전제로서의 부권의 개념과 범주
3. 조선후기 시가 속 부권 상실의 흔적들
4. 상실의 흔적들 속에 담긴 문화론적 의미망들
5. 나오며-잃어버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像을 찾아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 시가(특히, 사설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을 찾고 그것이 갖는 문화론적 의미망을 한번 살펴본 것이다. 최근 들어, ‘아버지’는 문화 담론에서 여성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고전시가에서의 연구사적 관심은 거의 일천한 편이다. 부권(父權)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가정 내 담론인 ‘父/夫’와 국가 및 사회적 담론인 ‘君/아버지의 법’이 모두 포괄된다. 시대에 따라 ‘父’의 개념 및 의미역은 다소 달랐지만, 전통 사회에서 이러한 구분은 뚜렷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호환되며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권의 개념과 범주 속에서 조선후기 시가들을 살펴보면, 일탈하는 인물들, 반항하는 아들들, 향락적인 아버지,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는 주체, 悔恨하는 아버지들 등에서 부권의 흔들린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일탈하는 인물들은 불륜을 행하는 ‘아내들’이거나 게으르고 용렬한 ‘며느리들’로, 남성성의 상징인 ‘건강한 육체’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이에 적합하지 못한 ‘아비/지아비’들을 버리기도 했고, 반항하는 주체들은 주로 소수자들로, 막강한 아버지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그 자리에 ‘향락의 아버지’를 양산하기도 했다. 또 부권 부재로 인한 어미/지어미들

\* 대구가톨릭대 부교수

은, 현실적인 가계 운영 문제와 마주해야 했으며, ‘아픔/병듦’으로 인한 부권 상실은, 家長 스스로의 자의식 문제와도 연결되어 悔恨의 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은 조선후기 문화론적 圖像 속에서 저항과 욕망, 근대라는 거대한 시가미학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탈주’와 ‘그를 향한 질주’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특히, 후자는 도주하려는 주체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려는 부권 회복에의 열망을, 제 3자가 훈계하는 방식이거나 경험해 본 주체가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 규율화 하여 전달하는 방식이거나, 시집가는 딸에게 훈계하는 방식 등 교조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아버지’가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로서, 인류를 생존의 자연적 삶에서 문화의 인간적 삶으로 데려 온 사람이자 사회와의 끊임없는 관계망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존재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아버지가 갖는 권위의 상실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한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는 점 외에 당대 문화사적 변모상을 밝혀낼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잃어버린 아버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아버지 像을 찾으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주제어 조선후기 시가, 부권(아버지) 상실, 저항-욕망, 근대(성), 탈주-질주

## 1. 들머리

본 연구는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을 찾고 그것이 갖는 문화론적 의미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들어, ‘아버지’는 문화 담론에서 여성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1996), 『아버지의 눈물』(2010)에 등장하는 고개 숙인 우울한 아버지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고, 1997년 MBC 창작동요제 입상곡이 큰 히트를 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으며, KB금융그룹의 광고 ‘하늘같은 든든함, 아버지(몰래 카메라 편)’에서는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의 자화상이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800만 이상의 최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 일반에 퍼져 있는 아버지 열풍에 대해서는, IMF 이후에 시작된 것<sup>1)</sup>으로 보기도 하고 문민정부로 시작된 반권위주의적인 정치풍토에서 배태된 것<sup>2)</sup>으로 보기도 한다. 비록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성을 잃고 빠르게 속물화되어 가던 데 대한 반동이 이런 열풍을 낳았다는 데<sup>3)</sup>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리고 이 반동은 또 그간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온 젠더 연구에 대한 반성적 시각 속에서 더욱 커지기도 했다.

젠더 연구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이 방면 연구는 늘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과 그들의 권익을 찾는 데 더욱 치중해 왔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 반성은, 이제 여성이 아닌,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성(성)’, 특히 ‘아버지’의 새로운 지점들을 살펴보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후기 소설 속 父權 형상의 일면을 고찰한 논의<sup>4)</sup>나 왕족 및 특정 가문이 남긴 글들에서 父意識과 아버지 像을 찾으려 한 논의<sup>5)</sup>, ‘엄격한 가부장 → 집 떠난 부양

- 
- 1)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임, 『아버지는 누구인가: 마음에 새긴 아버지의 초상화』, 청조사, 2002.
  - 2) 한정환·오경희, 「최근 한국아버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8집, 한국보육학회, 2008, 105~121쪽.
  - 3) 김영철,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72쪽.
  - 4) 장경남, 「조선후기 소설을 통해 본 부권의 형상-『어룡전』, 『양풍운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25~148쪽; 홍현성, 「<보은기 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체적 父性的 의미」, 『돈암어문학』 32집, 돈암어문학회, 2017, 107~132쪽.
  - 5) 강혜선, 「조선후기 운증 가문의 父意識과 아버지 像」, 『돈암어문학』 32집, 돈암어문학회, 2017, 75~105쪽; 서명원, 「한국 전통사회 아버지 상(像)에 대한 고찰-왕족, 문헌 속 인물, 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5집, 대한아동복지학회,

자(1830-1900) → 온유한 아빠(1900-1970) → 협력적 양육자(1970~현재)'로 시기별 父의 변천상을 고찰해 본 논의<sup>6)</sup> 등이 그 대표적이다.

비록 여성 연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사적 관심은 매우 주목된다. 이는 언제부터가 공적인 것, 지배적인 것, 보편적이면서 늘 절대적일 것만 같았던 남성성 또한 불완전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인식이 대두함에 따라, 전통 시대의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아버지'의 등장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는 가족을 통솔해 가는 존재이자 차세대에게 전통과 가치의 중심, 정신적인 면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아버지가 갖는 권위의 상실은, 단순히 전통적인 家父長의 위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세대의 중요한 가치들을 차세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사적 문제도 함께 야기한다. 그런 만큼 부권 상실의 흔적은, 한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는 점 외에 당대 문화사적 변모상을 밝혀낼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에 대하여, 고전국문시기<sup>7)</sup>에서의 연구사적 관심은 거의 일천한 편이다. 물론, 계녀가류 가사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온갖 내용을 조곤조곤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한 경우<sup>8)</sup>나

2007, 101~121쪽.

- 6) 김영철, 「근대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상의 변천과 가정교육」, 『아시아교육연구』 17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5쪽.
- 7) 현전 고전 국문시가는, '고대가요, 향가, 속요, 경기체가, 약장, 시조, 가사, 잡가'로 원칙적으로는 민요, 무가, 한시도 다 다루는 것이 맞지만 국문학을 국문문학/구비문학/한문학으로 나누어 보는 관례에 따라 논의의 편의상 '민요, 무가'는 구비문학에, '한시'는 한문학의 영역으로 보고자 한다.
- 8) 최규수, 「아버지作 誠女歌의 변이양상과 시가 교육적 함의」, 『어문연구』 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323~347쪽;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259~266쪽.

조선 후기 자전적 술회가 담긴 가사 작품에서 약화되어 가던 남성성의 일면을 살펴본 경우<sup>9)</sup>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시가문학에서 여전히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像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물론, 家長의 부재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려 한 노력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아버지’는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로서, 인류를 생존의 자연적 삶에서 문화의 인간적 삶으로 데려 온 사람”<sup>10)</sup>이자 사회와의 끊임없는 관계망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존재이다. 아버지가 갖는 이러한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이제 고전 시가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찾아 아버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특히, 조선후기는 부권 상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이루어진 동시에 그러한 붕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가열차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런 만큼, 이러한 시기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조선후기 시가에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을 찾아 보고, 그 회복을 위한 열망은 또 어떠했던가를 살펴보는 것은 당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버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고찰하겠지만 조선후기 사설시조와 서민·규방가사<sup>11)</sup>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

9)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67~106쪽.

10) 김영철(2014), 앞의 논문, 2쪽.

11) 본 연구에서 사설시조는 모두 『고시조대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정본 시조대전』(심재완 편), 『시조문학사전』(박을수 편)을 참조하여 사설시조 전체를 따로 모아 놓은 다음의 저서에서 참고한 것이며(박상영, 『사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3부 사설시조 모음 편), 가사는 전 작품을 다 다룰 수 없어, 『역대가사문학주해』(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2005) 및 기타 규방가사 관련 자료집 수록 가사 중 부권 상실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서민·규방가사 작품 몇몇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살폈음을 미리 밝혀둔다(<노처녀가> I·II, <텐동어미화전가>, <용부가>, <나부가>, <우부가>, <복선화음가>, <상심화전가>, <상사회답가>, <한별곡>, <과부가>, <청춘과부가>, <청춘과부즈탄가>, <망부가>, <상사몽>.

버지', '아버지의 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그러지고 무너지며 사라져간 흔적들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性 담론, 소수자의 일탈, 반항, 절대-저항 권력 등 굽적굽적한 시가미학사적 문제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시가를 대상으로 그간 견고하게 형성된 '전통적 아버지=조선조 가부장'이라는 등식이 조선후기에 어떻게 흔들리고 있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간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젠더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이 시대, 새로운 아버지 像을 모색하는 단초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이해의 전제로서 부권의 개념과 범주<sup>12)</sup>

고전시가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부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범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권(父權)은 字意대로만 본다면, 남성 家長이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 갖는 家長權·家父權이라 할 수 있다. 이 가부장권은 씨족사회가 점점 부족국가 내지 종족국가의 형태로 발전됨에 따라 출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물에 대해 지배하는 권리나 그를 외부에 대표하는 대표권(代表權), 가족원을 지배하는 가독권

<여인살피라>, <경기가라> 등).

12) 본 연구에서 부권의 '상실'은 '흔들림'도 포함한다. 엄밀히 말해서 '상실'이란, 있던 것에서의 없음을 의미하고(無), '흔들림'은 여전히 존재하는 유(有)의 상태이므로 한테 묶일 수는 없다. 하지만, 작품 속 부권 부재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 흔들림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은 면에서 동일한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편의상 그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해 온 한, 제도적·법적 차원에서의 '아버지가 갖는 법(부권)'은 표면상 '상실'된 적은 없지만, 이들이 갖는 권위가 추종자들에 의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는 분명 '상실'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家督權), 가족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권(財産權), 조상의 영혼에 대한 봉헌인 제사권(祭祀權)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용어”<sup>13)</sup>로 사용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권(父權)의 ‘父’에는 가정 내 생물학적인 ‘아버지’, 곧 자녀들에 대한 수직적 개념으로서의 ‘父’만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수평적 개념으로서의 남편(夫)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아버지’와 ‘시아비(夫)’라는 兩意性이 모두 함의<sup>14)</sup>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父에는 언제나 가정과 집을 대표하는 지배자(dominus)로서 아버지/시아비만이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종교적 지도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에서 보듯, ‘나’에서 시작된 담론이 한 가정으로, 나아가 국가와 천하로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은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안민가>에서 君은 아미요, 臣은 어미요, 백성은 아이라고 한 구절만 보더라도, 국가의 君-臣-民의 관계가 가정의 父-母-子의 관계로 상호 전환이 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父權과 국가의 王權은 한 집안 혹은 ‘한 국가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세력이다.

이때, 가정과 사회에서의 ‘아버지/시아비’는 대체로 엄격한 훈육자이자 계

13) 이효재,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1967, 246~247쪽.

14) 실제 남성(성)의 상징으로서 ‘父’와 ‘夫’의 중첩성은 뚜렷한 구분이 힘들어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신혜수, 『부권적 세계의 잔혹성을 폭로하는 여성 주체의 윤리성』, 『이화어문논집』 28집, 이화어문학회, 2010, 125~143쪽; 김현미, 『슬픔과 탄식속의 지아비/아버지 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29~250쪽). 또한 논자에 따라서는 가부장제는 부권이 부정된 이후에도 사생활의 영역에서 존속하는 그 무엇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리(patriarchal right)’와 ‘부권(paternal right)’을 구분하기도 하지만(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조한욱 역), 새물결, 1999, 276쪽) 관념이 아닌, 실상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도자로서 등장한다. 즉 ‘아버지’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 단지 삶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세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어른들의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사람”<sup>15)</sup>이자 가족(국가) 보호와 생계의 책임을 맡은 핵심 주체이다. 이러한 ‘아버지’는 막강한 父權의 소유자로서, 전통 시대에 자녀(백성)의 生死를 결정할 만큼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절대 권력자로서의 아버지는 서구에서는 ‘로마시대의 아버지(Pater familias)’라고 불렸는데, 주로 고용인이나 친척까지 포함하는, 확대 가족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존재라는 의미였다. 이때의 ‘아버지’란 친자관계에 기초한 生父보다는, 가문에 속하는 모든 식솔의 만사를 관장하는 首長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이다.<sup>16)</sup>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일본에서 ‘家人(집안사람)’은 곧 생활 공동체, 같은 술 밥을 먹는 사람,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sup>17)</sup>이라는 의미가 강했고, ‘아버지’는 그러한 家를 관장하는 인물로서, 혈연관계보다는 한 집안에 속하는 모든 식솔들을 관장하는 首長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띠었다.<sup>18)</sup>

15) 필리프 켈리엔, 『노아의 외투』(홍준기 옮김), 한길사, 2000, 50~58쪽.

16) 아버지 像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김인홍, 「아버지 像의 역사적 변천」, 『교육사회학연구』 7집, 한국교육사회학회, 1997, 73~84쪽).

17) 일본어에서 ‘家’는, 옛날에는 부뚜막의 상징성만을 지녔다가 이후 생활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영체를 넓게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해 왔는데, 이는 혈연보다는 함께 거주하는 ‘장소[場]’가 중시되었음을 말해준다. 즉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이들을 ‘家人’이라고 일컬었다(노영희, 「일본 문학 속에 나타난 ‘家[이에, 집]’와 아버지」, 『同大論叢』 26집, 동덕여자대학교, 1996, 76~77쪽 참조).

18) 비록, 동·서양 문화권에서 모두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던 ‘아버지’는 점차 친 혈육·부인·재산만을 관장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家長이 되는 쪽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父’의 개념을 협소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이는 조선조 전체를 통틀어, 비록 家長이 한 집안의 어른·首長이라는 의미가 강했어도 실상 ‘君-父’를 —



父權의 개념 및 범주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父權에서의 ‘父’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아버·쑤만이 아니라, 주체에게 금지와 억압을 표상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상징계 권력의 막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라캉에 따르면, 상상계에 있던 주체는 어머니-아이의 이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제 3자의 개입(아버지의 은유)으로 말미암아 상징질 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자는 꼭 생물학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19)</sup> 결국 ‘아버지’는 생물학적, 경험적 아버지 외에, 상징적 질서로서의 ‘아버지-이름’/‘아버지의 법 혹은 은유’의 의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父權은 家長의 권한(家父長權)으로서, ‘父’에는 夫와 父를 모두 포함하되, 가정 내 담론인 ‘父/夫’와 국가 및 사회적 담론인 ‘君/아버지의 법’을 모두 포괄한다. 시대에 따라 ‘父’의 개념 및 의미영역은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전통 사회에서 이러한 구분은 뚜렷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호환되며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父權의 개념과 범주에 따라 가정 윤리로서의 父/夫, 사회 윤리로서의 君/아버지의 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중 ‘君’은 특히 ‘王權’으로 따로 지칭되어 온 관례가 있고 사회적 금기로 대표되는 ‘아버지의 법’과 겹치는 부분도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의 편의상, ‘아버지의 법’으로서 포괄해서 보고자 한다.<sup>20)</sup>

體로 인식했던 사고는 조선조 전체를 관통하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19) Lacan, 『욕망이론』(권택영 옮김), 문예출판사, 1994, 1~309쪽 참조.

20) 父權에는 전통적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아버 외에, 정치적/종교적 지도자도 포함되는데, 논의가 범박해질 우려가 있어 종교적 지도자는 제외하되, 정치적 지도자(君)는 ‘아버지의 법’과 동일선상에서 보고자 한다. 왕권과 부권은 서로 공통항이 있으며, 조선조에서 왕권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사회적, 제도적 기제가 ‘아버지의 법’으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조선후기 시가 속 부권 상실의 흔적들

‘아버지’는 구체적이고 생물학적인 像으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사회적 기제로서 다소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아버지의 像으로 제시될 때도 있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상실되면,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인 주체들은 다양한 행동양태를 보여주게 마련이다. 대체로 조선후기 시가에서는, 주체들이 일탈 및 반항하거나 그리움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내하거나 향락적 태도를 보이거나 회한하는 방식 속에서 그 상실의 흔적들을 보여주는데, 앞의 셋은 사회적 차원의 아버지가 상실된 경우이며, 뒤의 둘은 생물학적, 실제적 차원에서의 아버지가 상실된 경우이다.

#### 1) 일탈하는 여성들과 “부정되는 아버지”

스람마다 못할것은 남의 님 떠다 情드려 닛코 말뭇하니 이연하고 통 스정못  
 하니 나 죽기구나  
 꽃이라고 뜻어를 내며 님히라고 홀터를 니며 가지라고 썩거를 니며 히동청  
 보라미라고 제밥을 가지고 곳여를 벨가 다만 秋波 여러 번에 남의 님을  
 후려를 내여 집신 간발하고 안인 밤중에 월장도쥬흐야 담 넘어갈제 식인  
 비 귀먹쟁이 잡녀석은 남의 속너는 조금도 모르고 안인 밤중에 밤스람  
 왔다고 소리를 칠제 요너 간장이 다 녹는구나  
 춤으로 네모양 그리워서 나 못살게네. <169>

니르라보자 니르라보자 내 아니 니르라 네 남편드려  
 거긷거스로 물깃는 체하고 통으란 나리위 우물전에 노코 쏘아리 버서 통조  
 지에 걸고 건너집 자근 金書房을 눈기야 불너내여 두손목 마조 덩석 쥐  
 고 슈근숙덕 헛다가서 삼뱃트로 드러가서 무스일 헛는지 존삼은 쓰러지고  
 굴근 삼대 썩만 나마 우즷우즷헛더라 하고 내 아니 니르라 네 남편드려

저아희 입이 보다라와 거죽말 마라스라 우리는 마을 지어미라 밥먹고 놀기  
하 심심하여 실삼키러 갖더니라. <280>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아 어이려뇨  
쇼대 남편의 밥을 담다가 늦쥬겨 잘눌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려뇨 식어마님아  
저 아기 하 걱정마라스라 우리도 저머신제 여러홀 부르쳐 보왔니. <239>

이몸이 녀즈되어 도로빅년 어려워라/문밖게를 아니나고 규합에서 싱장하여  
/빅년가기 덩홀적에 연분을 싸라가셔/불경이부 곳은언약 털석긋치 먹엇더  
니/무심흔 일봉서찰 어더로 온단말가...(중략)...그더는 대장부로 천금긋흔 귀  
흔몸을/이내일신 위하여셔 병이들 누엇스니/심정을 허비타가 가련이 죽게  
되면/원억흔 터흔빅이 내타을 숨으리라/빅년 못살여든 늬의명을 쓴케하라/  
이러나 저러나 그디스정 브리리요/연분이 잇고 즈연이 맞나리라/상스로 겁  
히든 병 다풀치고 기드리소/금월모일 명월야에 아뭇조록 뵈올이다.//<상사  
회답가(想思回踏歌)>-

우선 위에는 모두 불륜을 자행하는 문제적인 ‘아내들’이 등장한다. 남  
의 임자를 유혹해 몰래 만나려는 유부녀(<169>), 남편 몰래 이웃집 남자와  
은밀한 情事를 나누고 변명을 늘어놓는 유부녀(<280>), 과감하게 소  
대 남편의 밥을 담다가 늦 주격을 부러뜨린 후 이를 걱정하는 유부녀  
(<239>), 상사병에 걸린 남자가 보낸 편지에 만나기로 합의하는 유부녀  
(<상사회답가>)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여기서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부재하거나 그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상황 판단을 모르는 ‘귀머거리’로 등장한다. 아내나 며느리의 행위를 통제  
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부권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심  
지어, ‘아버지의 법’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조차 부정행위를 저

지른 머느리를 옹호하기까지 한다(<239>).

‘불륜’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이다. 그런 만큼 이를 금지하고 강제하는 제도적 법이나 이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은 ‘아버지의 법’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위의 ‘아내들’은 이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 ‘아버지의 법’을 인식했다면, 불륜 따위는 애초부터 저지르지 않았을 터이다. 가정 및 사회의 통제권을 갖는 父權 부재는, 이처럼 자신만의 로맨스를 펼쳐나가는 대담한 아내들을 양산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여성들은 규방가사에서도 발견된다. 기존에 주어진 ‘여성 다움의 위치’에서 벗어나 일탈 행위를 과감히 하는 여성들은, 주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대들기가 일상인 <나부가>의 금세부인, 홍보거나 독살부려 그릇 깨기, 시어른들의 걱정애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 <복선화음가>의 괴똥어미, 친정집에다 편지해서 시집 홍보기, 시부모/남편에게 말대답하기를 서슴없이 하는 <용부가>의 저부인 등<sup>21)</sup>으로, 대체로 게으른 여성들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중세 여성의 덕목인, 治産과 婦德과는 거리가 멀다. 시어른/남편의 훈계나 조언에도 이랑곳 않고 천성이 그러하다며 쾌악스럽게 행동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이미 이러한 여성들을 통제할 사회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법이 상실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차원에서

21) ‘저 글른 줄 제 모르고 못된 고집(固執) 더욱 너여 기동안고 도려서며 통통니며 혼난 말니 본태성(本胎生)니 그러하니 지금 옷지 곳치릿가//-<나부가>-’; ‘어른걱정 하올 적에 족박함박 드던지며 성내여 솟대달기 독살부려 그릇깨기 등잔 뒤에 남 보기며 가만가만 말도깨와 아니한 말 지여내여 일가간에 이간질과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하기 여사로드//-<복선화음가>-’;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나 믿었드니 십벌지목(十代之木) 되었세라...(중략)...시부모가 걱정하면 완악키 말대답이며 남편이 사설하면 뒤쫓그려 맞넉수라//-<용부가>의 저부인 사설-’.

이들 여성들을 ‘나부’나 ‘용부’의 한 부류로 묶어, 게으름, 방탕, 음란함이 라는 본능적 일탈을 덧씌워서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닌 부인들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 했더라도, 이미 그 이면에는 이러한 여성들을 강제할 ‘아버지 법’이 그 실효성을 상실해가던 흔적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이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더 이상 따라야 할 규범적 권위가 아닌 것이다.

부권 상실은 이처럼 단순히 불륜이나 쾌락스러운 행동으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家長의 성적 능력을 문제 삼아 이를 버리려는 형태로까지 나타날 때도 있다.

밋남진 그놈 紫驄 병거지 쓴놈 소디 書房 그놈은 샷병거지 쓴놈 그 놈  
 밋남진 그놈 紫驄 병거지 쓴놈은 나 빈 눈에 정어이로되  
 밤中만 샷병거지 쓴 놈 보면 실별 본 듯 ㅎ여라. <136>

술이라 ㅎ면 물 물 혀듯 ㅎ고 飮食이라 ㅎ면 현 물등에 셔리藥다오듯  
 兩 水腫다리 잡조지 팔과 흘기눈에 안팍 씩장이 고자남진을 망석중이라 안  
 쳐 두고 보라  
 門밖긔 桶메웁쇼 ㅎ고 웨는 匠事 네나 자고 니거라. <213>

엷고 검고 크 크고 구레나룻 제것조춘 길고도 넘다  
 점지 아닌 놈이 밤마다 비에 올라 죠고만 구멍에 큰 연장 너허두고 흘근할적  
 흘 제는 愛情은 크니와 泰山이 덩누로논듯 존 放氣소리에 젓먹던 힘이  
 다 빠이노미라  
 아모나 이 놈을 다려다가 百年同住 ㅎ고 永永 아니 온들 어너 개늘년이 쇠  
 앓새움 ㅎ리오. <245>

위에는 성적 불구이거나(<213>) 성적 능력이 떨어지거나(<136>), 혼  
 자만 일반적으로 즐거운 성관계를 갖는 家長(<245>)을 버리려는 아내들

이 등장한다. 어느 경우든 작품 속 아내들은 모두 남성의 性(器) 및 성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남성에게 있어서 ‘性’은 세계의 중심이며 자아정체감을 드러내는 것이자, 타자(여성)와의 권력 관계를 증명해 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의 性, 육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곧 남성 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도전이자, 절대적 권위를 갖던 부권이 상실되어 가는 흔적에 다름 아니다.<sup>22)</sup>

전통 수사학에서 이상적 남성상은, 보통 수사가 혹은 연사의 모습으로 상징되는데, 그 필수요건 중 하나는 ‘능변’이지만, 이 외에 남성다운 신체적 요소가 또한 요구되기도 했다.<sup>23)</sup> 여기에는 남성다운 신체는 단순히 외형적인 ‘보기 좋음’ 외에, 궁극적으로 도덕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사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sup>24)</sup> 이는 결국 家長이 갖는 父權의 위엄과 권위는, 도덕적 정신과 육체가 결합된 남자다움에서 획득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건전한 정신과 몸을 함께 중시한 동양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볼 때, 작품 상 보이는 남성다운 육체의 결핍은 곧 도덕적 정신의 결핍이자 “자신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은 ‘아버지’로서, 본질

22) ‘육체’는 단순히 문학적 소재나 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식과 권력의 상징체계로서 의미를 지니는 까닭에 하나의 기호로서 역사적으로 수사학적인 중요성을 지녀왔다. 따라서 ‘남성의 육체’가 재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곧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문학적 표현이자 남자의 육체가 일반적인 육체, 세계의 기준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브룩스 피터,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49~51쪽).

23) 키케로는, 이상적인 연사는 “민첩한 혀, 듣기 좋은 목소리, 힘찬 가슴과 체력, 그리고 얼굴과 신체의 확실한 구조와 형상...(중략)...정서와 정신은 재빠른 민첩성을 가져서, 착상에서의 예리함과 구성과 수식에서 풍부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기억에 맡겨진 것을 확실하고 진실 되게 간직해야 한다.”고 보았다(Cicero, *Über den Redner*, dt. Übers. v. Harald Merklin, 2. Aufl. Stuttgart 1981, I, XXV, p. 113 u, 114).

24)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현대 남성성의 창조』(이광조 옮김), 문예출판사, 2004, 10쪽.

적으로 상징계에서의 실패”<sup>25)</sup>를 의미한다. 실패한 아버지는 이처럼 어미/지어미에게 가차 없이 부정되고 버려졌던 것이다.

## 2) 반항하는 소수자들과 “향락적 아버지”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흔들린 부권은, 다양한 형태의 반항하는 아들<sup>26)</sup>/딸/지어미들을 양산해 내기도 했다. 보통, 첩, 아이, 며느리, 노처녀 등 주변부 중에서도 주변부인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가)

압니다 뒤니나中에 소먹이는 아희놈들아  
 압니 고기와 뒷니 고기를 다몰속 줍아니 다락기에 너허주어든 네 소궁동치  
 해 걸쳐다가 주렴  
 우리도 밧비가는 길히오미 傳 呼동말동 呼여라. <227>

새악시 식집간 날 밤에 질방그리 디엿슬 쓰러 브리오니  
 식어미 이르기를 몰나 달나 呼는괴야 새악시 對答 呼되 식어미 아들놈이  
 우리집 全羅道 慶尙道로서 會寧鍾城 다히를 못쓰게 썩러어 괴로쳐시니  
 글노 비겨보아도 兩呼 將 呼가 呼노라. <188>

저 건너 월양바희 우희 밤등마치 부형이 울면  
 넷스름 니론 말이 늬의 식앗되여 妖怪롭고 邪奇롭고 百般巧邪 呼는 저문  
 妾년이 急殺마자 죽는다 呼데  
 妾이 對答 呼되 안해님 呼신 말씀이 아마도 망녕저의 나는 일즉 듯즈오니

25)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 73쪽.

26)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처럼, 생물학적 남성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응하는 수직적 개념으로서의 차세대(아들, 딸, 며느리 등)와 수평적 개념으로서의 아내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표성을 띤다.

家翁을 薄待하고 妾새음 甚히 訶는 늘근 안희님이 묻저 죽는다 訶데.  
<312>

(나)

인간세상 사람들아 이 내 말씀 드러보소...(중략)...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좁양반이 양반인체 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하여 괴망을 일 사므니 다만 한  
딸 늘거간다...(중략)...노망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하리 죽도록 날 길러  
서 자비쓸가 구어쓸가...(중략)...부친 하나 반편이오 모친 하나 숙맥불변 날  
이 새면 내일기오 세가 쇠면 내년이라 혼인사설 전폐하고 가난사설 뿐이로  
다 ...(중략)...친고 없고 혈속 업서/위로하 리 전혀 없고/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노처녀가>1-

우선 (가)에는 자신의 바쁨을 이유로 어른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는 아이(<227>), 질방구리 물리려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절을 훼손한 아들을 들먹여 말대꾸하는 며느리(<188>), 아내가 지켜야 할 유교 윤리를 들어 자신의 행태를 꼬집는 처를 비판하는 첩(<312>)이 등장한다.

부권이 공고하던 때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다. 중세의 ‘아이’는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무지몽매한 존재로서, 늘 교육과 훈육의 대상이었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따라야 했던 존재였고, 첩은 처에 비해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늘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참아야 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이/며느리/첩’이, 더 이상 ‘아버지의 법’이 강요한 역할과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長幼/姑婦/妻妾의 수직적 질서를 강요하는 ‘아버지’에 대항하여, 이제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겠다는 저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가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에는 시집보내지 않는 부모를 향해, ‘가난한 좁양반’, ‘노망한’, ‘반편’, ‘숙맥불변’ 등 온갖 나쁜 용어



를 다 갖다 부치면서,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처녀’가 등장한다. 부모와의 갈등은, 남녀의 애정 욕구만 있으면 혼인가능하다는 시적 화자와 명분과 체면이 맞아야 일이 성사된다고 보는 부모 간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부모를 향한 강한 불만 표출은, 중세 질서와 가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차세대의 반항에 다름 아니다. 차세대의 반항은 곧 ‘아버지 세대’에 대한 도전이다. 달리 말해, 이전에 통용되던 ‘아버지의 법’이 강력한 규제력을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반항 과정에서 ‘아버지의 법’은 흔들리며 결핍을 드러내고, 그 결핍이 생긴 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향락적인 아버지가 ‘잔여물’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sup>27)</sup>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중심을 흩어놓는 역할을 한다.

재너머 석앗슬 두고 손벽치며 애써 가니  
말만흔 샷갓집의 헌덕석 펼쳐 덩고 얼거지고 트러졌네 이제는 어리복이 叛  
奴軍에 들거고나  
두어라 모밀씨에 두 杖鼓를 말녀 무슴허리오. <306>

마루너머 시아슬 두고 손편을 척척 치울고 지너머 가니  
고디광실 뉘흔 집의 화문등미 보요 깔고 시앗년니 마료 안져 섬섬 옥슈로  
에후루쳐 안고 얼그러지고 뒤트러졌다  
두어라 팔간용디장에 전오전빅 노듯하니 나는 이밤 식오기 어려외라.  
<116>

남촌활랑 지쑥이는 부모덕에 편이놀고/호의호식 무식허고 미련허고 용통허

27) ‘향락적인 아버지’들은, 3.1.절의 여성들과 ‘일탈’의 측면에서 동궐에 놓이지만, 논의의 선명성을 위해 3.1.절은 ‘여성 일탈’의 측면에, 3.2.절은 전반적으로 무너진 ‘남성 家長’에 초점을 두었다.

야...(중략)...종손핑계 위전과라 투전질이 성이로다 / 제스핑계 제과과라 관  
 즈구설 이러는다/뉘라서 도라볼가 독부가 되단말가...(중략)...저건너 솜성원  
 은 / 제아비의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드니/술한잔 밥한슈을 친구더접 흐얏  
 든가...(중략)...더종손 양반즈랑 산소나 파라볼가/ 혼인핑계 어린쌀은 빅양  
 쓰리 되었구나/안악은 친정사리 즈식드른 고싱사리 /일가에 눈이희고 친구  
 의 손가락질/부지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드러볼가/ 산너며 썩성원은 그야  
 말이 흐우로다...(중략)...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스랑이라 / 늘근부모 병  
 든쳐즈 손톱발톱 제쳐가며/즘못즈고 길습현 것 술니기로 장괴두고 / 칙망업  
 시 바린몸이 무삼싱의 못혀셔/누의즈식 족하즈식 식주가로 환미허며 / 부  
 모가 걱정허면 외락더라 부라더며/안악이 스설허면 밥상치고 계집치기 / 도  
 망산의 피를씻나 저녁굽고 쏘나간다//<-우부가>--

여기에는 아내를 돌보지 않고 첩에 빠진 채 성적 욕망의 쾌락을 즐기는  
 향락적인 家長들이 등장한다(<306>, <116>). 이러한 형태의 가장은  
 <우부가>에 이르면 더욱 심각하다.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나 가정을 돌보  
 지 않고 타락 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개똥이, 넉넉하게 시는  
 편이었으나 부모자식 팽개치고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비참해지게 되는  
 꿈 생원, 경제적으로 철저히 몰락하여 평생 빚, 술, 노름에 빠져 살아가는  
 난봉꾼인 뽕 생원은 모두 향락 추구형 가장들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성리학적 윤리규범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서 중세의 해체적 징후를 보  
 인 것으로 보거나<sup>28)</sup> 제시된 규범 타파와는 거리가 먼, 단순히 대상을 희  
 화화하며 흥미·오락을 추구한 작품<sup>29)</sup>으로 보는 등 상반된 견해가 제출되

28) 여기에는 중세 해체적 징후를 보여준 작품으로 근대성을 간취하려 한 논의(①), 근대  
 성과의 연결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작품 속 세 인물을 양반의 전형으로 보아, 양반  
 사회가 붕괴해 가던 19세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본 논의(②)가 있  
 다(①정재호, 「<우부가>고」,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참조; ②강명관, 「<우  
 부가>연구」,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1999).

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들 인물을 당대 전형적인 유형이 아닌, '품행제로'인 한 개인의 문제라고까지 보았다.

그러나 과연 <우부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조선후기 시가에서 보이는 수많은 일탈형 인물들을 개인적인 인물형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문학 작품 속 문제적인 인물들은, 비록 그 인물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과장된 면모를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대의 문제를 압축한 희극적 인물의 전형일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베르그송이 보통 희극의 주인공들은 고유 명사이기보다는 보통명사들로 등장한다고 한 것<sup>30)</sup>이나 한 사람이 다양한 악행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일탈형 인물들을 보통 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sup>31)</sup>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 향락적인 아버지들은 당대의 문제적 인물을 대표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적인 인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부권 유지의 핵심은 家長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 및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 권위의 궁극적 근거는 승인과 동조이다. 그런데 위의 인물들의 경우, 주변인들로부터의 이러한 승인과 동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향락적인 태도로 이들의 반감을 사거나 배척되며 (<우부가>, <용부가>),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아들/딸들에 의해 그 권위가 실추되는 면을 보여줄 뿐이다(사설시조). 모두 부권 상실의 파편화된 흔적들이다.

29) 김대행, 「<우부가>의 주제와 시대성 논의 반성」, 『개신어문연구』 5·6집, 개신어문학회, 1988; 신성환, 「유교의 통속화와 우부가」, 『한국시가연구』 41집, 한국시가학회, 2016, 169~196쪽.

30) 앙리 베르그송,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정연복 역). 세계사, 1992, 22쪽.

31) 서인석, 「조선후기 향촌사회 여성 형상의 한 면모」, 『양포 이상택 선생 환력 기념 논총』, 집문당, 1998, 632~633쪽.

## 3) 삶의 무게를 실감하는 주체들과 “회한하는 아버지”

한편, 부권 상실은, 가족의 부양 의무를 지던 家長의 부재로, 남은 지어미들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데서 발견되기도 하고, 반대로 병환·노환으로 남성성을 상실해 간 아버/시아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서 발견되기도 한다.

書房님 病들여 두고 쓸것 업서 鍾樓 저지 달리 파라  
 비사고 감스고 榴子스고 石榴샷다 아츠아츠 이저고 五花糖을 니저 발여고즈  
 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193>

낭군님만 홀로누워 알키만 시작하네/우황뱀 암소알뜰 아주꽝꽝 알는구나...(중략)...영감할미 죽어지면 초종양에 누가할고/남전복답 많은전답 누구에게 전해줄고/고방에 쌓인곡식 빈민구제 하여보자...(중략)...한 살두살 울는가니 칠팔세 닥쳐왔네/천자책 옆에끼고 서당방 보내보자/천자책 얼른 읽고 동몽선습 읽는가나/낭군님의 제조받아 천재라 불러주네/낭군님아 낭군님아 이른자미 모르시고/적막강산 홀로누워 어찌하야 못오시나...(중략)...애고애고 내신세야 저자식 고히길러 장성한 나이들면/명문대가 구혼하야 숙여배필 구할때라 누구에게 상의할고//<相思夢>-

아무리 호천통곡흔들 사자난불가 부싱이라/무라도 홀슈읍서 그렇저렇 장사  
 흐고/죽으랴고 익乙썩도 싱흔목숨 못죽을니/억지로 못죽고서 쏘다시 벌어  
 먹니...(중략)...된자식乙 젓물이고 가르더안고 생각하니/지난일도 귀막히고  
 이압일도 가련하디/전닐소록 물도깊고 너물소록 산도높다/엇진연의 고성팔  
 자 一平生乙 고성인고/이더나이 육십이라 늘거지니 더욱슬의/자식이나 성  
 희시면 제나밧고 사지마난/나은점점 마나가니 몸은점점 늘거가니/이러크도  
 홀슈읍고 저러크도 홀슈읍다//<덴둥어미 화전가>-

우선 <193>에는, 家長의 역할을 상실한 병든 남편과 그를 보살피는 아내가 등장한다.<sup>32)</sup> 남편이 좋아하는 화채 재료들을 사면서 화자가 머리 장식까지 팔았다 한 것을 보니, 그간 남편을 돌보다 가산을 탕진해 간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고<sup>33)</sup>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편은 스스로 무언기를 할 수 있는 상태(自活者, 自存者)는 아닌 듯싶다.<sup>34)</sup> 장애 남편을 둔 아내로서의 삶이란 것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기 힘들 만큼 지옥에 근접한 삶일 것이다. 그렇기에 단 맛을 낼 五花糖을 잊어버렸다며 ‘아차아차’ 아쉬워하는 모습에선 살짝 웃음도 유발되지만, ‘수박에 술 쏘즈 노코 한숨계워 흐노라’ 한 데에 이르면 애잔한 슬픔마저 느껴진다. 여기서 ‘한숨’은 단순히 살 품

32) 이 작품은 김수장의 作으로 알려져 있지만, 텍스트적 상황은 남성의 것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상황이다. 논자에 따라 작자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작품 속 텍스트 화자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로 본다. 전자로 보면 작품 속 ‘여성’은 남성의 욕망 투사체로서 남성들의 유희적 공조와 향락적 정서가 내재된 인물들로 이해되지만, 과연 ‘여성’이 남성의 대리자, 피소나로서만 존재했던가는 의문이다. 당시, 사설시조의 향유/연행 주체들을 보면,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사고를 지닌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의해 소환된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연행 현장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 한 여성들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 문인들이 여성의 입장이 되어 代作한 글들이 심심찮음을 볼 때, 단지 연행 현장에서 남성들에 의해 불렀다 하여, 작품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남성의 담론’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다(줄고, 『사설시조의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89~128쪽).

33) ‘쓸 것 없어’라는 표현은 1950년대까지도 존속한 관용구로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만한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수중에 없음을 뜻하며, 그런 만큼 함축된 맥락으로 미루어 보아 시적화자는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서민층에 속하는 것 같다(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35쪽).

34) ‘장애’는 오늘날 보통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리키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不能自存者와 不能自活者(삼국 시대), 독질자, 폐질자, 잔질자(고려 시대), 不成人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불편함을 지닌 인물,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인물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조선 시대)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이에 관한 연구사 및 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 자세히 정리된 바 있다(줄고, 『사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25~166쪽).

목을 깜빡 잊은 데서 오는 한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픈 家長으로 인해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아낙네의 한 서린 한숨이기도 할 것이다.

아픈 家長이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남겨진 자의 슬픔은 더욱 극대화된다(<상사몽>). 임의 부재는 단순히 그리움의 감정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가게 운영이라는 현실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즉, 임을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산을 탕진해 가거나 있던 家産의 유지 및 상속 처리 문제, 奉祭祀, 자녀 양육 및 혼처 의논 등을 생각하는 것(<상사몽>, <덴둥어미화전가>) 등은 그 자체가 곧 남겨진 자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고민들이다.<sup>35)</sup>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이러한 부권 상실은 남겨진 타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죽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듦/늙음’으로 인한 부권 상실은, 남성 家長 스스로의 자존감 문제와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언제나 건강하고 오래 존속할 것 같았던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남성 스스로에게 남성으로서의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다.

니몸에 가진 病이 혼두가지 아니로다

보아도 못 보논눈 드러도 못 드러난 귀 마타도 못맛논코 말못흔는 입이로다  
있다감 腰痛과 腹痛이며 眩氣嘔痰滯症은 別症인가 호노라. <282>

위에는 우선 표면상 나이가 들어 온갖 신체적 기능이 죄다 떨어진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이 작품은 육당본 『청구영언』에 조선후기 문인이자 객인 金敏淳의 作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늙음에 따른 병증을 앓는 화

35) 여기에는 <망부가>, <恨別曲>, <寡婦歌>, <青春寡婦歌>, <청춘과부즈탄가> 등 소위 신변탄식류 가사에서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부재 대상에 대한 그리움만 드러난 경우도 있고, 집안 운영, 생계유지,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섞인 경우도 있다.

자의 현실을 표현할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생애를 고려하면 온갖 신병에 대한 유희적 묘사를 통해 세상에 대한 우의적 한탄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시적화지는 타자의 돌봄 없이는 일상이 불편할 만큼 不成人의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소외된 삶에 대한 한탄으로 읽힌다면(육체적 장애), 후자의 경우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한 가득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될 법하다(정신적 장애). 이 둘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사실 후자의 상황으로 전자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만큼, 그 이면에는 모두 육체적 혹은 심적 장애로 인한 부권 상실의 흔적이 감지된다.

이쯤 되면, 장애로 인한 부권 상실은, 이제 남겨진 자의 몫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실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 스스로의 몫이 된다. 약해진 아버지, 悔恨에 젖은 아버지는 비단 장애나 늙음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를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자신의 처지를 회상하는 데서도 뚜렷이 발견<sup>36)</sup>된다.

이러한 남성성의 상실은 상실 그 자체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이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의지는 대체로 풍류남아로서 성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sup>37)</sup> 父權 회복 의지가 性 기능의 건재함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

36) 여기에는 시집간 딸에게 글을 보내 아내 잃은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는 <탄소사>나, 남성의 술직한 내면풍경이 잘 묘사된 <상심화전가> 등이 있다. 이들은 ‘중세사회가 해체되면서 남성으로서의 강한 모습만을 요구받던 시대적 이념의 틀을 서서히 벗어던질 준비가 된 것’(박경주, 『상심화전가의 예외성에 대한 고찰』,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161~167쪽)으로, 부권 상실의 흔적이 감지된다.

37)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 날을 아는다 모로는나/니 비록 늙었시나 노리춤을 추고 南北漢 노리 갈 계 찌러진 적 업고 長安花柳 風流處에 아니 간 곳이 업는 날을/閨氏네 아모리 숙보와도 하로밤 격거보면 數多 혼 愛夫들의 將帥 될 줄 알아라//<317>’.

된다. 이는 여성에 의한 남성의 육체 및 성적 행위에 대한 찬양이 부권 상실의 측면과 관계되는 것과는 달리, 남성에 의한 性 담론은 부권 회복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 4. 상실의 흔적들 속에 담긴 문화론적 의미망들

지금까지 사회적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일탈하고 반항하는 소수자들, 삶의 무게를 실감하는 주체들, 향락적이거나 회한하는 아버지들의 모습 등에서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부권 상실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흔적들이 정말 부권 상실의 결과물일까? 아니면 이외는 무관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의 문학적 표현인 것일까? 이는 조선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격변하던 이 시기의 문화론적 도상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sup>38)</sup>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부권의 중층성과 ‘아버지’로부터의 탈주

: 욕망<sup>39)</sup>-저항, 그리고 근대

조선후기 시가 속 부권 상실의 흔적들이 갖는 문화론적 의미망을 도출

38) 부권 상실의 여러 흔적들 중, 3.3.절에서 다룬 ‘삶의 무게를 느끼며 그리움 속에 남겨진 주체들’과 ‘아픔/늪음에서 오는 회한하는 家長’은 작품 속 ‘아버지/시아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우(생물학적 아버지)로, 사회적 측면의 아버지(아버지의 법/은유)의 흔들림/상실과는 무관하다. 개인/생물학적 차원의 ‘아버지’ 부재와 당시 문화론적 도상과의 관련성은 추후 별고를 마련하고자 한다.

39) 여기서 ‘욕망’은, ‘저항 및 저항 주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자, 사회사적인 함의나 거대한 제도권과는 무관한, 인간 본성을 자연스럽게 발현한다는 의미로 한정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껏 부권 상실의 흔적들로 읽어낸 제반 현상들이 과연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징후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조선후기가 과연 전란 이후, 아버지의 법이 그 실효성을 상실해 갔던 시기였던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일면 조선 후기는 양란 이후, 사회를 지탱하던 이전의 많은 패러다임이 붕괴되어 갔을 법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되는 아이러니컬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전의 자녀균분상속제도가 17세기를 지나면서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으로 바뀐 점, 결혼 후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가던 婦妻制가 이후 반대로 여성의 시집살이 형식으로 바뀐 점, 여성의 재혼 또한 종법 제적 가부장제 아래서 비난되기 시작했던 점, 전기에 보여준 性에 대한 성리학적 규제 또한 조선후기에 오면 그대로 이어졌거나<sup>40)</sup> 오히려 더 강화되기도 했던 점 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법제적으로도 전기 때 ‘아버지’가 가진 권위의 대단함이 후기에까지 이어진 흔적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자손, 처첩, 노비로서 부모와 가장의 죄를 고한 자는 모반반역 외에 絞刑에 처한다.”는 『경국대전』의 ‘告存長’의 기록<sup>41)</sup>은 이후 增補된 『속대전』에서 “자손이 그 조부모 및 부모를 고소한 자는 曲直을 분별하지 않고 依法論罪하여 彝倫을 밝힌다.”<sup>42)</sup>는 것

40) “牛羊之屬 必有懷孕之候 既胎則便空 人又不及也 禽獸之匹 不擇妍媸 人則或厭醜而好姣 棄老而趨少 其男悅女 女惑男窺牆劫逐 竟日窮年狂飜劇惡不知休息 穢惡不可道也 此何天理...(中略)...是故喪心之德 亡身之福 毀名之高 殺身之強 變顏之美 致躬之疾 促命之長 鈍心之靈 闇耳目之聰明 廢平生之學業 破祖先之產業 患害不可勝算也 情欲如火 女色如薪 火固將熾值色必燃...(中略)...君子以理御氣 動靜合道 不然者 理閉而氣用事 靈覺之心反爲所使 比如伶俐人行惡尤烈 到此誰謂之禽獸不若可也.”(이익, <色欲>, 『星湖僊說』卷30).

41) “자손, 처첩, 노비로서 부모와 가장의 죄를 고한 자는 모반반역 외에 絞刑에 처한다.”(『경국대전』, 서울대 규장각, 1997, 493~494쪽).

42) 『속대전』, 서울대 규장각, 1998, 429~430쪽.

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밝히면 죽을죄에 해당되었지만,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杖刑과 1년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사실<sup>43)</sup>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영조는 부형이 ‘죽여 용서할 수 없는’ 悖子와 惡弟를 죽이는 것은 죽을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孝子·順弟라면 부형에게 맞아죽더라도 원망은 품지 않을 것<sup>44)</sup>이라고까지 했다. 이러한 국가적 담론과 당대의 인식은 실제 아들의 배를 찢러 죽인 사건<sup>45)</sup>마저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만 보아도 조선후기를 과연 부권 상실의 시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 시기는, ‘아버지의 법’이 강화되는 국가주의의 실천이 다각도로 이루어진 때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살펴본 제반 현상들은 부권 상실의 결과가 아닌, 오히려 국가주의적 윤리 담론이 강화된 데 따른 저항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조선 후기가 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으로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가 이루어졌던 때라는 점이다. 독일 사회심리학자인 Mitscherlich<sup>46)</sup>에 따르면, 경제적 변화와 고도의 분업화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위엄을 훼손하고 집 안팎으로 절대적으로 지니던 권위의 상실을 가져온다. 조선후기 경제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분제의 변동 과정에서 생겨난 양반층의 비대화는, 향촌 내 특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가문 중심의 조직화,

43) “律文內 祖父母父母, 故殺子孫者, 杖六十 徒一年.”(『추관지』, 서울대 규장각, 2004, 327쪽). 같은 내용에 대해 『大明律』에서는 “杖七十 徒一年半”이라고 하여, 시대별 형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속대전』, 서울대 규장각, 1998, 322쪽.

45) 『추관지』, 서울대 규장각, 332~333쪽.

46) Mitscherlich A., Der unsichtbare Vater, in : *Kölner Zeitschrift für die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1955.

세력 있는 가문들끼리의 배타적 결성 등을 통한 신분 확보 현상을 낳기도 했지만<sup>47)</sup> 몰락 양반이 속출하는 사회적 흐름을 막을 길은 없었다.

비록 무너진 중세 질서를 재건하려는 남성의 노력이, 강력한 유교적 법 제들로 제시되면서 표면상 父權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을지라도, 실상 그것은 무너져가던 남성성을 재건하려는 지배질서의 노력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면상 강화된 ‘부권’은 실상 이면에 불안정성과 흔들림을 내포한, 父權 喪失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권의 중층성 속에서 나타난 ‘난장’과 ‘일탈’은 부권 상실에 따른 결과로서, 전대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반항, 곧 ‘아버지’로부터의 탈주의 움직임으로 해석될 법하다. 그런데 동시에 당시 조선후기의 풍속도를 생각하면, 이들 흔적을 과연 부권 상실의 결과로만 보기에는 주저되는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일탈하는 여성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과 조선후기 性담론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 시정에서는 춘화와 음사 소설이 크게 성행했으며, 양반들 사이에는 여성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성기 크기와 성행위의 기교 중 어느 쪽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을 만큼<sup>48)</sup>, 성적 욕망은 인간 본연의 일탈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언제나 존재해 왔던 것이라면, 조선 후기사가 속 성적 일탈을 꿈꾸는 주체들을 이 시기로만 한정해서는 곤란할 것이며 ‘부권 상실’과도 어떤 면에서는 관련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물들을 두고, “성적 억압에 저항하여

47)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67쪽.

48) “余嘗客于公山 有甲乙兩人 而共論陰陽事 甲曰 男子陰大 女必惑之 乙曰 不然 女之所惑 惟在善御 不在大小 乙固辯士 甲無以詰 遂携乙而來道其事 謂余曰 幸片言折之 以斷吾訟也 余曰 余非女也 安知女之所惑也 然吾當以古人之言證之 太史公呂不韋傳曰 不韋求大陰人 膠毒以其陰貫銅輪而行 太后聞之 召與絕愛之...(中略)...甲喜乙猶不屈.”(成汝學, 『老妓判決』, 『續禦眠楯』, 『古今笑叢』).

성적 자유를 구가한 여성의 출현이 아니”며, “그것은 그 시기 성적 욕망의 자연적 존재 양태일 뿐”<sup>49)</sup>이라거나 이 시기 일탈형 인물들은 유교적 통속화에 따른 결과일 뿐 중세에의 저항이나 근대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고 한 것<sup>50)</sup>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비단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들, 다양한 사회적인 힘, 권력과 담론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sup>51)</sup>이라는 논지를 수용하면, 이 시기 일탈주체들을 단순히 당대의 통속적 일상을 반영한, 개인의 욕망을 표출한 인물로 치부하고 말 일인가는 또 의문이다.

푸코는 일찍이 인간의 性은 사회적, 역사적 힘의 산물이므로, 가부장제에서 금기로 억압되어 왔던 것이며, 그렇기에 비록 그 “드러냄이 지극히 개인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금기의 파탈로 이어질 성적 표현은 곧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의 몸짓”<sup>52)</sup>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바 있다. 性을 단순한 개인의 정욕 표출, 해방, 일탈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육체에 आरो새겨진 저항의 기호들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곧 성에 관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단힌 단성적인(univocal)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적 이해관계가 얽혀 열린 다성적인(polysemic) 것”<sup>53)</sup>으로 봄을 의미한다. 개인의 단순 욕정이 표출된 단성이 아니라 집단의 기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된 다성적인 것은 근대(성)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54)</sup>

49)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연구』 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27~28쪽.

50) 신성환(2016), 앞의 글 참조.

51) 제프리 워스,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서동진 역), 현실문화, 1999, 18쪽.

52) 박훈하, 「전후소설의 성담론과 역사의식과의 상관성」, 『코기토』 49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153~164쪽.

53) 토릴 모이,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임옥희 외 역), 한신문화사, 1994, 186쪽.

물론 性에 대한 욕망/갈망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근대와 관련해서 이해하려는 데에는, 性이 단순한 욕망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체성의 근본적인 지표이자 자아 진리의 핵심이 된 근대의 ‘주체’ 개념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자아각성 이면에는, 단순히 성적 욕망을 표출하겠다는 당위적 선언이 아니라 기존 담론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전대와는 다른 여성의 性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생들이 보여준 일련의 사회사적 행동들은 주목된다. 사설시조와 서민·규방가사가 성행했던 시기와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18~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현전 妓生案에는 대부분 스스로의 性을 보호하려는 기생들의 의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관기들이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소장을 바치며 따진 일(<教坊節目·完文><sup>54</sup>)이나, 童伎의 加冠을 기록해 어린 기생들의 性 관련 부역을 감하려 한 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官妓奴婢案」), 강압적인 性 행위 요구에 죽음 또는 강한 결의로써 공론화 한 기생들<sup>56</sup>) 그리고 이들에 당대 몇몇 사대부들이 공감한 일<sup>57</sup>) 등이 바로 그것이다.

54) 다성성/다중 시선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오형엽, 「시선의 근대성과 다중적 차이의 문학적사」, 『서정시학』 26집, 서정시학, 2016, 112~126쪽).

55) <教坊節目·完文>은 다음 글을 참조(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江界府의 「교방절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47쪽).

56) 당시 기생 중에는 성적 강요에 저항하다 매를 맞아 죽거나(名花), 우물에 뛰어들거나(逸仙), 세검정, 영월 강물에 빠져 죽은 사례(全不聯, 瓊春) 등이 있다.

57) “聖人設司教 常欲倫理篤 胡不禁官妓 祇令風俗黷 耽樂壞坊範 良足增慚忸 况乃使殘酷 種種司民牧 有似縱虎狼 任意嚙且搏 貞烈不自葆 慘慘爲鬼錄.”(成海應, 「田不關行」, 『研經齋全集』卷1); “世皆視娼妓以鶉鵲 不復以人理處之 是在位者之責耳 豈娼妓之性然哉 誨淫而譏其不貞 是猶強酒而惡醉 豈人其入之道乎 瓊春自知不更二夫之爲烈 而能辦大節如此...(中略)...人受天地之中以生 無古今尊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아버지의 법에 결코 포섭되지 않으려는 강한 열망을 性 담론을 통해 풀어갔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자기 몸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들 여성처럼 혼육 대상이기를 거부하며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아이들, 윗사람에게 또박또박 대드는 첩/며느리, 주어진 남성 역할로부터의 일탈과 방황하는 家長들 등도 모두 아버지로부터의 탈주 욕망을 보여준 건 아닐까?

이들의 탈주 욕망이 바로 근대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가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분명 이들이 보인 탈주 형태 자체는, 중세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면들이 다분하다. 만일,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모순투성이며, 그 속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당대 금기시되던 것을 스스럼없이 행하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의 모럴(Moral) 상실이자, 적어도 그러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내포된 것은 아닐까?

## 2) 부권 회복의 열망과 ‘아버지’를 향한 질주

한편, 사회 변동기를 맞아 흔들리던 부권은, 주체들에 의한 아버지로부터의 탈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탈주하려는 이들을 붙잡으려는 아버지들의 시도와 맞물려 나타나기도 한다. 그 시도는 상실된 부권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주로 교조적인 목소리를 통해 제시된다.

白髮에 환양 노는 년이 저문 書房을 마초와 두고  
 센머리에 먹칠하고 泰山峻嶺으로 허위허위 너머 가다가 과그른 쇼나기에  
 暈동정 거머지고 검던 머리 다 희거고나  
 그르사 늘근의 所望이라 일락배락 흥더라. <148>

卑之殊者 彌可見於此矣.”(洪直彌, 『妓瓊春傳』, 『梅山先生文集』卷51).

妻을 조타 ㅎ되 妾의 說幣 드러보소

눈에 본 중 계집은 紀綱이 紊亂 ㅎ고 노리게 女妓妾은 凡百이 如意 ㅎ되 中  
門안 外方官妓 그 아니 어려우며 良家女卜妾 ㅎ면 그中에 닳건마는 안  
마루 발막짜과 방안의 장옷귀가 士夫家貌樣이 저절노 글너가네  
아무리 늙고 病드러도 規模 되히기는 正室인가 ㅎ노라. <351>

너의 찌난지가 거연 일삭이라 무심 아비오나 아조야 이즐손야...(중략)...너몸  
이 천디바다 아름답지 못호소식 니귀이 들일진된 쌀뭇갈친 아비책망 스든볼  
낮 잇깃난야 길멀고 외진곳이/아니듯고 안보난지 도히혀 승책이라 각별명  
염 ㅎ엿으라 이와이 여러 가지 기록할말 만치만은 노안이 히미 ㅎ고/정신이  
아득 ㅎ야 귀요 ㅎ말 보기쉽게 가스지여 쇠귀이 경이르기 더강경지 ㅎ압나니  
아비의 정곡이요 너이게 기약서라 기기히 슬퍼보고 일일이 썸바드면 ㅎ실애  
도 유익 ㅎ고 복록을 누루리라 무술연 아비 씨노라//<여아(女兒)슬퍼라>-

우선 <148>과 <351>에는 교조적이고 교화적인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  
의 법으로부터 도주하려는 주체(노년 여성, 첩)를 ‘아버지의 법’ 속에 가두  
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는 성적 욕망을 표출한 노년 여성을, 통제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남성 중심의 시선에서(<148>), ‘첩’을 비판적  
으로 보며 정실을 두둔하는 화자의 시선에서(<351>) 뚜렷이 드러난다.  
보통 젊은 남성을 만나려는 노년 여성들이나 妻을 위협하며 家長을 향락  
에 빠뜨리는 妾 등은 중세 사회에서 위험한 여성들로 재현되며 감시와 처  
벌의 대상이 된다. 이 감시·처벌은 도망하는 주체들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이는 흔들린 부권을 회복하려는 아버지의 열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부권 회복의 열망은 제 3자가 도주하는 주체들을 향해 직접 훈  
계하는 방식일 때도 있지만, 경험해 본 주체가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 규  
율화 하여 전달하는 방식일 때도 있고<sup>58)</sup>, 앞으로 다사다난한 일을 겪게

될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방식일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위의 <여야 슬피라>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버지 作 계녀가 중 하나로, 신행 보낸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 딸에게 媿家살이의 어려움을 교훈한 것이다. 표면상 慈母形 아비 像이 보이지만, 계녀가류가 창작되던 시기, 문화 일반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는 단순히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기존에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아버지 作 계녀가는 “계녀가의 전형성을 따르기보다는 小學의 이념을 따르면서 戒女書의 틀을 따르는 추세를 보였”으며, “孝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치밀한 논리 전개로 논술하는 것은 독자로 설정된 부녀자의 취향이라기보다는 필자인 아버지들의 취향”<sup>59)</sup>이다. 『小學』은 한때 기묘사화 이후 훈구파에 의해 禁書로 규정되었다가 다시 많은 文士들에 의해 읽히기 시작한 책으로, 조선조 교육 기관의 필독서였으며 종종 대에는 일반 서민과 부녀자의 교과서로까지 확대, 보급된 서적이었다. 물론 『小學』 외에도, 『송우암선생계녀서』(송시열)와 『사소절』(이덕무)과 같은 사찬 규범서들이 규범의 일상화를 촉진하기도 했다.<sup>60)</sup> 하지만 그 기본 골자는 『小學』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내훈·규범서들이 크게 출판, 유통된 데에는 당시 부권 약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염려가 담겨 있다. 이는 양란 이후 실추된 왕실의 위상을 재고하고 통치력을 복원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소실된 전적 중 가장 먼저 『龍飛御天歌』를 수차례 재 간행했던 문화적 현상<sup>61)</sup>과도 궤를 같이 한다.

58) <덴동어미화전가>에서 이러한 면을 볼 수 있다. 즉, 개가를 택한 결과가 몸이 불편한 아들과 후회로 점철된 삶일 뿐이라는 회한, 그렇기에 청상과부를 향한 덴동어미의 개가 만류에는, 개가해 본 삶의 리얼함과 진정함이 꺾진하게 녹아 있다.

59) 최규수(2008), 앞의 논문, 343쪽.

60)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12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45쪽.



이는 결국 부권 상실의 회복 의지가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무렵, 가정 내에도 그러한 규범화가 알게 모르게 내면화 되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여오살피라>와 같은 아버지作 계녀가류에서 아버지들은, 시집살이를 잘 못하면 불효일 뿐만 아니라 이후 제 자식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되리라거나, 행실이 좋지 못하단 소식이 들릴 바엔 차라리 먼 데로 시집보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시집살이의 교훈 경계를 크게 당부한다. 작품에 따라서는 자신의 교훈 경계를 듣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 식의 협박까지 하는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는데(<경기가라>), 이는 당시 父의식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는 비단 조선후기 시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퇴계가 남긴 家書에는, 목표의식이 확고 않고 스스로 분발하려는 의지 또한 결여된 아들을 질책하는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동학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냥에 빠져 있는 손자를 훈계하는 모습, 과거 시험에 제출했던 글이 형편없어 등수에 들지 못한 것이라며 대놓고 뼈아픈 지적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 등이 발견되며<sup>62)</sup>, 이 외에도 평시조<sup>63)</sup>, <목주잡가>(8~16수), <訓戒子孫歌九章君> 등에서도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작 계

61) 『용비어천가』는 광해군 때(『광해군일기』卷54, 광해군 4년 6월 3일)와 이후 효종 10년(1659)에 제 간행되었다가(『효종실록』卷21, 효종 10년 3월 18일사) 이후 연대기 자료에는 더 이상 간행 기사나 보이지 않으나, 영·정조, 고종 대에 『용비어천가』를 이용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영조실록』卷109, 영조 43년 윤7월 10일; 『일성록』, 정조 15년 4월 2일; 『정조실록』卷52, 정조 23년 12월 21일 등).

62) 이황, 『퇴계 이황 아들에게 편지를 쓰다』(이장우·전일주 옮김, 연암서가, 2008, 37쪽·152쪽; 이황, 『안도에게 보낸다』(정석태 옮김, 들녘, 2005, 97쪽).

63) 여기에는 다음 작품이 있다. ‘니아희 箕裘業을 嚴師益友 업다말고/聖人만 篤信 亨여 實地上에 進進허면/千載에 一脈眞源이 自然相接허리로다./〔箕裘謠 40-40〕; ‘네 아들 孝經 넘더니 어도록 비환스니/내 아들 小學은 모리면 只출로다/어니제 이 두 글 비화 어덜거든 보려뇨./〔訓民歌 16-7 子弟有學〕’.

너가류는 바로 이러한 전대 및 당대의 문학사적 창작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전란 이후 부권 회복이라는 문화사적 현상을 담아낸 결과물이었던 것이지 조선후기 갑작스레 태동된 문학적 현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 5. 나오며-잃어버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像을 찾아서

지금까지 조선후기 시가에서, 일탈하는 인물들, 반항하는 아들들, 향락적인 아버지,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는 주체, 悔恨하는 아버지들을 통해 부권 상실의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대체로 일탈형 인물들은 불륜의 ‘아내들’이거나 게으르고 용렬한 ‘며느리들’로, 남성성의 상징인 ‘건강한 육체’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이에 적합하지 못한 ‘아버지/시아비’들을 버리기도 했고, 반항하는 주체들은 주로 첩, 아이, 며느리, 노처녀 등 소수자들로, 막강한 시원적 아버지를 흔들여 놓음으로써, 그 자리에 ‘향락의 아버지’를 양산하기도 했다. 또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져야 했던 어머니/지어미들은, 家長을 향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녀양육, 경제적 궁핍 등 현실적인 가계 운영 문제와 마주하기도 했으며, ‘아픔/병듦’으로 인한 부권 상실은, 또 家長 스스로의 자의식 문제와도 연결되어 悔恨의 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부권 상실의 흔적들은 조선후기 문화론적 圖像 속에서 저항과 욕망, 근대라는 거대한 시가미학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탈주’와 ‘그를 향한 질주’의 양면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후자는 도주하려는 주체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려는 부권 회복에의 열망을, 제 3자가 훈계하거나 경험해 본 주체가 ‘아버지의 법’을 내면화, 규율화 하는 방식이거나 하는 등 교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짚고 갈 것은, 바로 생물학적

/사회적 아버지가 갖는 의미역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분신들’이 갖는 존재론적 함의 문제이다. 기존에 지적한 바 있듯이, 아버지의 분신들은 결국 복수의 아버지, 다중적인 아버지를 상징함으로써 “아버지의 절대성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의 결핍을 보완하여 절대성의 외연을 확장시키기도 하는”<sup>64)</sup> 이중성을 보여준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생산하는 것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婦德 중 하나였다. 아들을 생산 못한 경우는 쫓겨나기도 했으며, 사대부가에서는 다른 형제의 차남을 입양시키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때, 다른 집안으로 입양된 아들은, 복수의 아버지(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었다. 윤씨 집안의 차남이었으면서도 백부에게 입양되면서 家長의 위치에까지 오른 고산 윤선도,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복수의 아버지를 둔 주체의 입장에서 살핀다면 어떤 새로운 지점들이 발견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문은, 이제 고전문학 속 큰 족적을 남긴 문인들의 삶과 글 뒤에 크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발자취 및 이의 부재를 어떻게 추적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부권의 문제는 한 가정, 한 국가의 도덕성(Morality)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생산한 작가론 이해를 심도 있게 할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

실상 이 모든 것은, 이 시대, 잃어버린 아버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아버지 像을 찾으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고전 속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복원하려 하고 또 그들이 가진 권위 상실의 흔적을 추적해 보려는 것은, 사실 모두 오늘날 우리의 아비/지아버들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다름 아니다.

64) 김덕희, 「소포클레스, 코르네유, 볼테르의 오이디푸스 비극 속 아버지-그 상징과 실제」, 『불어불문학연구』 101집, 불어불문학회, 2015, 26쪽.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억압과 도피의 이중적인 심리적 병리현상을 가진 남성들이 수두룩하다. 마마보이의 미성숙함을 보이는 아비/지아비에서부터, 도착적인 성적 능력에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아비/지아비, 사회분업체계의 한 구석에서 허덕대는 '부양자 및 능력 콤플렉스'에 치여 사는 아비/지아비<sup>65)</sup>에다 빈 등지 증후군까지 끙끙 앓으며 삶을 회한하는 아비/지아비에 이르기까지 실로 남성들의 수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자아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연민에 빠져 자기과괴를 일삼는 그야말로 부권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들이다. 고전시가 속 쾌락과 유희에 빠져 가계를 돌보지 않는 향락적인 아버지나 남성성 상실에 따른 회한하는 아버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비 像을 찾아 이 시대, 진정한 아비/지아비 像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겠지만, 아마 그 첫걸음은 진지한 자기 인식과 성찰을 토대로, 비로소 타자를 향해 자율적이고도 유연함을 갖추게 되는 데서<sup>66)</sup> 시작될 법하다. 비록 훈육된 군국주의적 몸의 잔재는 오늘까지도 남성들 속에 내재해 있어, 언어적, 신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탓<sup>67)</sup>에 쉽지는 않을지라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어미/지어미의 노력과 아들/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승인이 한데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 부권 상실과 회복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바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때문이다. 부권 상실의 통, 공시적 흔적 찾기 문제 및 복수의 아버지가 갖는 의미역의 문제 등과 더불어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65) 정유성, 『아버지 없는 사회』,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1997, 78~79쪽.

66) 정유성,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2001, 81쪽.

67) Klaus Theweleit, *Männerphantasien*, München, 2000, p.75.

참고문헌

『경국대전』, 서울대 규장각, 1997.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2.  
 『續禦眠栢』, 『古今笑叢』.  
 『研經齋全集』卷1.  
 『星湖僊說』卷30.  
 『속대전』, 서울대 규장각, 1998.  
 『영조실록』卷109, 영조 43년 윤7월 10일.  
 『광해군일기』卷54, 광해군 4년 6월 3일.  
 『일성록』, 정조 15년 4월 2일.  
 『정조실록』卷52, 정조 23년 12월 21일.  
 『추관지』, 서울대 규장각, 2004.  
 『妓瓊春傳』, 『梅山先生文集』卷51.  
 『효종실록』卷21, 효종 10년 3월 18일 기사.

강명관, <우부가>연구,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 1999, 343~369쪽.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연구』 42집, 한국한문학회, 2008, 9~43쪽.  
 강혜선, 「조선후기 윤증 가문의 父意識과 아버지 像」, 『돈암어문학』 32집, 돈암어 문학회, 2017, 75~105쪽.  
 김대행, 「<우부가>의 주제와 시대성 논의 반성」, 『개신어문연구』 5·6집, 개신어문 학회, 1988, 89~119쪽.  
 김덕희, 「소포클레스, 코르네유, 볼테르의 오이디푸스 비극 속 아버지-그 상징과 실제」, 『불어불문학연구』 101집, 불어불문학회, 2015, 5~32쪽.  
 김영철, 「근대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상의 변천과 가정교육」, 『아시아교육연구』 17 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1~24쪽.  
 김영철,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71~96쪽.  
 김용수, 『자크 라캉』, 살림, 2008, 1~94쪽.

- 김인홍, 「아버지像의 역사적 변천」, 『교육사회학연구』 7집, 한국교육사회학회, 1997, 73~84쪽.
- 김현미, 「슬픔과 탄식속의 자아비/아버지 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29~250쪽.
- 김홍규, 『사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1~308쪽.
- 노영희, 「일본 문학 속에 나타난 ‘家[이에, 집]’와 아버지」, 『동대논총』 26집, 동덕여자대학교, 1996, 75~91쪽.
-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조한욱 역), 새물결, 1999, 1~310쪽.
-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259~266쪽.
- 박경주, 「상심화전가의 예외성에 대한 고찰」,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161~167쪽.
- 박상영, 「사실시조의 여성을 향한 두 시선」, 『시조학논총』 50집, 한국시조학회, 2019, 89~128쪽.
- 박상영, 「사실시조에 나타난 장애의 一面」, 『국어국문학』 183호, 국어국문학회, 2018, 125~166쪽.
- 박상영, 『사실시조의 웃음 미학과 담론』, 아세아문화사, 2013, 1~685쪽.
- 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江界府의 「교방절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1~47쪽.
- 박훈하, 「전후소설의 성담론과 역사의식과의 상관성」, 『코기토』 49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6, 153~164쪽.
- 브룩스 피터,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1~532쪽.
- 서명원, 「한국 전통사회 아버지 상(像)에 대한 고찰-왕족, 문헌 속 인물, 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이동복지연구』 5집, 대한이동복지학회, 2007, 101~121쪽.
- 서인석, 「조선후기 향촌사회 여성 형상의 한 면모」, 『양포 이상택 교수 환력 기념 논총』, 집문당, 1998.
- 신성환, 「유교의 통속화와 우부가」, 『한국시가연구』 41집, 한국시가학회, 2016, 169~196쪽.
- 신혜수, 「부권적 세계의 잔혹성을 폭로하는 여성 주체의 윤리성」, 『이화어문논집』 28집, 이화어문학회, 2010, 125~143쪽.

-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임, 『아버지는 누구인가: 마음에 새긴 아버지의 초상화』, 청조사, 2002, 1~70쪽.
- 양리 베르그송,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정연복 역), 세계사, 1992, 1~171쪽.
- 오형엽, 「시선의 근대성과 다중적 차이의 문학사」, 『서정시학』 26집, 서정시학, 2016, 112~126쪽.
- 이황, 『안도에게 보낸다』(정석태 옮김), 들녘, 2005, 1~383쪽.
- 이황, 『퇴계 이황 아들에게 편지를 쓰다』(이장우·전일주 옮김), 연암서가, 2008, 1~381쪽.
- 이효재,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1967, 1~384쪽.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주해』, 아세아문화사, 2005.
- 장경남, 「조선후기 소설을 통해 본 부권의 형상-『어룡전』, 『양풍운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25~148쪽.
- 정유성, 「아버지 없는 사회」,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1997, 73~86쪽.
- 정유성, 『따로와 끼리-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2001, 1~136쪽.
-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슬화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67~106쪽.
- 정재호, 『주해 초당문답가』, 박이정, 1996, 1~351쪽.
- 제프리 워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서동진 역), 현실문화, 1999, 1~190쪽.
- 조경원, 「조선후기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12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5, 39~62쪽.
-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현대 남성성의 창조』(이광조 옮김), 문예출판사, 2004, 1~382쪽.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1~435쪽.
- 최규수, 「아버지作 誠女歌의 변이양상과 시가 교육적 함의」, 『어문연구』 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323~347쪽.
- 토릴 모이,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임옥희 외 역), 한신문화사, 1994, 1~230쪽.
- 필리프 윌리엄, 『노아의 외투』(홍준기 옮김), 한길사, 2000, 1~144쪽.
- 현정환·오경희, 「최근 한국아버지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8집, 한국보육학회, 2008, 105~121쪽.
- 홍현성, 「〈보은기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제적 父性的 의미」, 『돈암어문학』 32

집, 돈암어문학회, 2017, 107~132쪽.

Cicero, *Über den Redner*, dt. Übers. v. Harald Merklin, 2. Aufl. Stuttgart 1981, I, XXV.

Klaus Theweleit, *Männerphantasien*, München, 2000.

Lacan, 『욕망이론』(권택영 옮김), 문예출판사, 1994, 1~309쪽.

Mitscherlich A., 'Der unsichtbare Vater', in : *Kölner Zeitschrift für die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1955.



ABSTRACT

The Traces of the Loss of Paternal Rights in Korean Classical Poetry  
in Late *Choseon* Dynasty

Park, Sang-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traces of the loss of paternal right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especially *Saseolsijo, Gasa*) and its cultural meanings. In recent years, 'father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con in cultural discourse as much as women, but the research interest in classical poetry is one-sided. Paternal authority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he male dominance of a woman and includes both the domestic discourse "father / husband" and the national and social discourse "King/the law of the father". The concept and meaning of 'father'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s, but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ese distinctions were rather mutually compatible and recognized rather than distinct.

In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hese rights, we can see traces of loss of paternal rights in devoted characters, rebellious sons, the loving father, the subject who feels the weight of reality, and the regretful fathers. Generally, deviating characters are the 'wives' who commit adultery or the daughter-in-law who are lazy and eloquent. They tend to think the absence of the 'an able body man' seriously as the symbol of the loss of masculinity, and abandon the fathers/husbands. The rebellious subjects are mainly minorities, and they also produced 'the father of pleasure' on the spot by shaking the powerful father.

In addition, they had to confront realistic problems of household management with the loss of paternal rights. The loss of paternal rights caused by 'pain/sickness' was also linked to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father-in-law and shows the sentiment of regret. The traces of this loss of paternal rights show the duality of 'escaping from the father' and 'rushing toward him', raising the huge aesthetical problem of resistance,

desire, and modernity in the culture of the late *Choseon* Dynasty. Particularly, the latter shows a desire for the recovery of the paternal rights which put the escaping subjects from the father into the system and it appears in the manner in which the third person admonishes, the way the subject experiences internalizing and disciplining of the "Father's Law", and the dogmatic manner of admonishing the marrying daughter.

Considering that 'the father' is a cultural component, and is a meaningful entity that brings humanity from the natural life of survival into the human life of culture and shows a constant network with societ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trace of the loss of paternal rights. This is because it is the basis for revealing the transforming cultural history of the present day besides how the family is collapsing. It is also linked to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lost father and seeking a new father figure.

**Key Words** Korean Classical Poetry in Late *Choseon* dynasty, Loss of Paternal rights(father), resistance-desire, modernity, escape-run

논문투고일 : 2019.03.29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